

양창영 대표 : 중국이야말로 최상의 파트너

— (주) 코코아컴 ‘구명쾌청기’ 중국 협력 파트너 모색중

한국 중소기업인 (주) 코코아컴이 독자 개발하고 미국식약감독관리국(FDA)과 유럽 화학물 안전시험기관인 SGS의 정상급 안전평가를 받은 정화수— ‘코아수’를 사용한 ‘구명쾌청기’(救命快清機)가 한국의 교육 현장, 의료기관과 공기관 등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에 (주) 코코아컴의 양창영 대표는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파트너 모색중”이라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강력한 공간 정화력은 물론, 천연피톤치드향(植物杀菌素香)을 내고 탈취 기능을 더한 상품력으로 세계를 석권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양대표는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형 공간 방역’ 기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노메터 크기의 극초미립자를 분사하는 방식의 특허 기술로 제작된 실내 분무형 방향기인 ‘구명쾌청기’는 방역, 탈취, 청정, 방향, 산소 생성 등 5가지 효능을 갖춘 공간 정화기이다. 이 제



▲ ‘구명쾌청기’를 개발해낸 한국 (주) 코코아컴의 양창영 대표

품은 FITI 시험연구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에

서 인증을 받았다고 양창영 대표는 말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구명’ 개념의 ‘차별적인 기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쾌청’ 효과를 갖춘 기계의 연구개발에 나선 양창영 대표는 다년간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것은 물론 잠자리마저 일부러 불편한 곳을 택하는 ‘와신상담’ 노력 끝에 다량의 수증기 분사에도 결코 결코 현상이 없는 고효율 구조 기기인 ‘무습성 분사구조’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기의 ‘공간 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성공 뒤에 숨겨진 지난 세월의 쓴맛을 되새긴다.

고출력 구조 기기로 ‘공기 중에 분사된 소독액’ 립자들은 1시간가량 체공(滯空)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50평방미터 크기의 넓은 공간에서 기침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즉시 ‘전자분해’가 가능해진다고 양창영 대표는 말한다.

기기에 사용되는 ‘코아수’는 지금 기술적 안정성이 높아져 한국의 연구개발 기관 대형 실험장은 물론 실제 일

상생활의 대형 공간에서도 강력한 분해력을 자랑하며 빠른 살균 효과와 탁월한 지속력으로 악취 제거에서도 세계적 수준을 발휘한다고 양창영 대표는 강조한다.

양창영 대표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양병원에서 5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압도적인 방역 성공률을 확인했다. 지금 유명 가수들도 애타튀가며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도 적극 진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의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조만간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공장장소에 설치되어 다수 사람들의 호흡위생을 보호하는 기기의 특징으로 인해 최대한 공공기관과의 연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창영 대표는 “만만치 않은 개발비와 제조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소모품을 제외한 기기 무상 사용권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에도 ‘기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량 생산 체계가 핵심이라며 “중국이야말로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신정자

림원춘생태과학기술, 천연자원과 과학혁신으로 글로벌 건강기업 도약

통합 산업망으로 경쟁력 구축

장백산림원춘생태과학기술유한회사는 2007년 백산강원공업경제개발구 장백산건강과학기술산업단지에 건설된 건강식품 전문기업이다. 재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산업망을 구축해 원료의 품질 관리부터 제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3,719만원의 자금과 10만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120만평방미터의 자체 재배기지에서 장백산 특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168명 종업원중 30명이 기술인력으로 국가급 술품평원(评酒员)과 특급 바텐더(调酒师)를 포함한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HACCP, 유기인증, ISO 9001/14001/22000 등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34개 특허와 69개 상표권, 13개 소프트웨어 저작권, 2개 과학기술 성과를 보유한 기술력강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구현한 천연 건강제품

장백산림원춘생태과학기술유한회사는 과학기술이 제1생산력이라는 발전 리념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품질을 생명으로 ‘원생태·건강식품’ 철학 아래 장백산 천연자원의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는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길림대학 등 대학교 및 과학연구원과 장기적인 협력을 맺고 있으며 전통 공예와 현대 가공기술을 결합하여 원료의 천연영양성분과 식감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림원춘은 건강식품, 주류, 음료, 산나물 등 6개 계열의 158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인 자연산 블루베리 음료 등 제품은 중국친환경식품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품질을 검증받았다. 림원춘의 자작나무 수액은 장백산의 친환경에서 채취된 100% 수액으로 17종 아미노산, 8종 광물질 및 베타틴 등 60여종의 식물성 영양소를 유지해 기능성 원료로 국내외의 광범한 관심을 받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자작나무 수액 채취



▲ 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 기술인력들

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봄철 싹틔기 10~15 일전의 짧은 기간에만 자작나무 줄기에서 수액이 배출되며 잎이 피기 시작하면 수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채취 기간이 15일 내외로 극히 짧을 뿐 아니라 야생 자작나무 군락지의 경우, 기계화 수집이 어려워 생산시설을 반드시 산림 림근에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은 과거 자작나무 수액이 동북 3성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작나무 수액은 투명하거나 연한 황색을 띠며 독특한 나무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4월 방설이 녹기 시작할 때면 자작나무 내부에서 수액 순환이 활발해지는데 이는 해동된 토양에서 뿌리가 대량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겨울에 축적된 영양물질이 체세포를 통해 줄기와 잎, 껍질 등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수액은 영양성분이 가장 풍부한 상태로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질과 활성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장백산림원춘생태과학기술유한회사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 정밀한 채취 시기 예측과 친환경적인 채취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무의 생장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특정 부위에서 제한적으로 수액을 채취하는 방식을 개발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진전이다.

장백산림원춘생태과학기술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 설명회는 “올바른 방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작나무는 약 2주일 이내에 수액 채취 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전했다.



▲ 100% 천연 자작나무 수액

장백산 건강제품을 글로벌 시장의 명품으로

장백산림원춘생태과학기술유한회사는 급후 당간설을 인도로 기회를 틀어쥐고 ‘세계적 건강식품 전형을

조성하고 미래 우수생활 신품조를 선도하자’는 목표 아래 건강산업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을 날개로, 친환경 발전을 관건으로 기술 연구개발과 과학 기술혁신에 힘을 집중시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판매 모식을 확대해간다. 아울러 국내외 시장을 한층 더 개척하고 브랜드 전략과 인재 전략을 실시하며 자본과 산업을 아울러 추진하게 된다. 자금 조달과 지혜 융합을 결합시켜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장백산에서 비롯된 자연의 선물을 더 많이 선사함으로써 장백산 생태식품 제1브랜드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건강산업 분야에서 빛나는 명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설봉화는 “림원춘의 제품은 장백산의 친환경에서 채취된 100% 천연 자작나무 수액으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다. 항산화,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 우수한 효능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급후 원료 공급을 넘어 가공제품 라인 확장 및 브랜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의향을 밝혔다.”

/ 정현관 류향희 오건 기자

김인순작가, 한양 공자학원 2025년 명사 강연회에서 강연



▲ 김인순작가 (좌 4) 한국 작가들과 만나

2025년 3월 29일, 한양대학교 공자학원에서 2025년도 명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 길림성작가협회 부주석이며 소설가인 김인순을 특별 초청했다.

김인순은 “내 《춘향》에는 ‘전’이 없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춘향》의 창작 배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작품의 깊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강연회는 한양대학교 공자학원 중국측 원장 권혁률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강연회는 2025년도 한양 공자학원의 첫 명사 강연회로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원대학교, 성결대학교, 동서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의 중국어 전공 교수 및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의 한국문학 전공 교수 그리고 작가 및 중국 문학에 관심 있는 재학중인 대학원생 50여명이 참가했다.

주제 강연후 김인순은 청중들과 AI 번역, 문학작품의 드라마 각색, 중한 가점문화 역사 및 현황, 중국 소수민족 작가의 문학 창작 등 다양

한 주제에 대해 깊이있는 교류와 토론을 진행했다. 청중들은 작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춘향》이라는 문학작품을 깊이 이해했고 중국 현대문학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인순은 중국 70년대 대표 작가로 현재 중국작가협회 주석단 위원이며 길림성작가협회 부주석이다.

김인순의 저서로는 장편소설 《춘향》, 중단편소설집 《복숭아꽃》, 수필집 《중생》 등이 있으며 영화작품의 각본으로는 〈목자〉, 〈회피〉 등이 있다.

장편소설 《춘향》은 전국 소수민족 문학창작 ‘준마상’을 수상했으며 장중문문학상, 춘신 원작 문학상, 림금란 단편소설상, 《소설월보》 백화상, 중국작가 출판 그룹상, 10월 문학상, 《작가》 금단편 소설상, 인민문학 ‘모태집(茅台杯)’상, ‘모태집’ 《소설선간(小说选刊)》년도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인순의 일부 작품은 또 영어, 한국어, 일어, 로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돼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김인순 한국 작가들과 만나

3월 30일, 김인순작가와 한국 작가들은 한양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좌담회를 소집했다.

이번 좌담회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로는 리상(李箱) 문학상과 동리(桐里)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박상우, 한무숙문학상 수상자이자 경희대학교 교수인 소설가 서하진, 리상문학상과 동인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권지예, 한무숙문학상과 심훈문학상 수상자이자 단국대학교 교수인 소설가 해이수 등이다. 한양대학교 공자학원 중국측 원장 권혁률교수가 이번 행사를 사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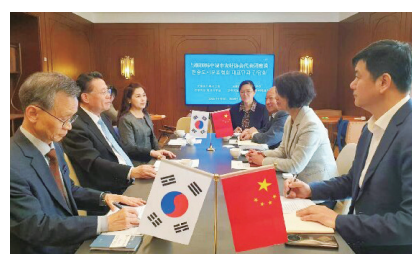
한국 작가들은 먼저 김인순의 장편소설 《춘향》에 대한 각자의 해석

과 감상을 공유한 뒤 이 작품과 한국의 판소리 소설 《춘향전》의 주제, 인물 묘사, 줄거리 구성 및 배렬 등 여러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분석하며 《춘향》의 시대적 의미와 깊은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중한 작가들은 웹소설, 문학작품의 영상화, 게임 IP 가치 증대, 미래 문학작품 주제의 경향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유익한 토론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중한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문학 창작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 한양대학 공자학원, 《길림신문》 해외판 최화기자

한중도시우호협회, 안휘성정부와 교류 간담회



▲ 상해 주재 안휘성대표처에서 교류 간담회를 하고 있는 권기식 회장 (왼쪽출구대)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은 9일 오전 상해시 장녕구에 위치한 상해 주재 안휘성대표처 사무소에서 안휘성정부의 관계자들과 중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 및 안휘성의사판공실 양소림 부주임 등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국과 안휘성정부의 교류 및 경제, 문화, 청소년, 농업, 콘텐츠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식 회장은 “중국에서력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안휘성과 한

국 지방정부들이 활발히 교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소림 부주임은 “한중도시우호협회가 한국과 안휘성의 교류를 위해 협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6월 황산에서 개최되는 ‘2025 RECP 지방정부 협력 포럼’에 권기식 회장을 공식 초청했다.

권기식 회장은 이어 상해시 홍구구에 위치한 협회의 상해지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해지회 개소식에 참석해 김적행 상해지회장, 리군용 한중경제협력센터 상해센터장, 류영춘 상해지회 비서장, 김용 한중문화교류센터 상해센터장, 탕비 중국법률사무소위원(변호사)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중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권기식 회장은 상해 일정을 마치고 해남성정부의 초청으로 해구시를 방문해 성정부 및 경제계 인사들과 만담 예정이다.

/ 한중도시우호협회, 《길림신문》 해외판 리호국기자